

시론



진호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뉴스, 영상, 영화, 쇼피, 심지어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까지. 내가 묻지 않아도, 내 취향을 분석해 추천해주는 영상과 기사, 상품들이 끊임없이 앞에 펼쳐진다.

나를 위해 엄선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그 영상을 시청했을 때 내가 만족할 확률을 90%, 95% 등 수치로 보여주며 보기를 강요한다. 인터넷 뉴스를 읽다가 우연히 검색한 상품은 뉴스창을 켤 때마다 나타나 지겹도록 따라다닌다.

알고리즘은 나의 기호와 선호를 파악해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맞춤형 추천을 통해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알고리즘은 바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그 덕분에 나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시간을 절약한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단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한다는 점이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견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고, 반대 의견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편리함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필터

알고리즘의 이중성

버블' 속에서 점점 더 확증 편향에 빠져들게 된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은 어려워지고,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된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알고리즘의 작용이 큰 원인 중 하나다. 정보의 편향성 강화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를 부추긴 결과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선거 운동에 악용된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정치적 선동에 활용됐으며, 그 결과 미국 사회는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다. 알고리즘이 대규모 데이터와 결합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도 알고리즘은 정치적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면서, 보수나 진보 성향의 정치 유튜브들이 더욱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편향된 견해를 더욱 강화하고, 반대 의견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로도 기능한다. 우리의 클릭, 검색, 구매 내역 등은 알고리즘에 의해 기록되고 분석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개인화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한다.

논란이 되는 '액티브 리스닝' 기술도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정교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 우리의 대화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등 감시 범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는 늘 남의 말을 엿듣고, 누군가의 행동을 들여다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과거에는 이런 호기심이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알고리즘이 있지만, 알고리즘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그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호기심은 이제 거대 기업의 손에 의해 상업화된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우리의 삶은 그 감시 속에 갇힌 지 오래다. 기업과 정치인들이 이익과 권력을 위해 알고리즘을 악용할 때, 사회의 정보 환경은 왜곡되고, 분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편리함 속에서 감시와 통제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 보수신문과 진보 신문을 비교해보며 진실에 접근하던 것처럼, 이면을 보아야 하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접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社說

광주시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더욱 분발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AI국가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것에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북항소풍물과 관련해선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겠다"면서 "광천-상무도시철도 지선 건립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현안에는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다.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에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광주시는 3월 전남도와 민

생토론회 공동 개최를 마다하고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끝에 나름의 결과를 성취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광주시는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예산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서, 국가가 설립한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AI영재고등학교 운영비는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국 투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담해야 할 예산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향후 나라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일관된 감세 정책과 긴축 기조로 추진 사업의 선순 순위가 정리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지자체 마다 순탄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가 있는 까닭이다. 광주시도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계속해서 당위·시급성을 설득해야 한다. 공동여 만든 토론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지휘본부 흥학관 기념공간화해야

1921년 광산동 100번지 일대에 세워진 흥학관은 광주시청의 동구 구시청 시기, 부속건물 및 시의회 건물로 활용되다 1960년 후반기 현재는 토지가 분할돼 개인 소유로 넘어갔다. 남도역사연구원이 주관하고,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후원한 토론회에서 흥학관이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지휘본부이자 전국 확산의 거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노성태 시민모임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1월3일 광주고보생과 일본 학생들이 동문다리 등지에서 대치하던 급박한 상황에서 전남청년연맹 집행위원장 장석천과 나승규, 국제진 등이 흥학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 투쟁 방향의 대전환을 지시했고, 독서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오후부터 거리시위로 전환됐다"며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거대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학생 희롱사건이 발단이 돼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의거로 여러 사회·청년단체들이 가세해 조직적으로 전개됐으며,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약 5개월 동안 5만4천여 명이 참여했다. 흥학관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비롯해 청년운동의 산실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도 지자체나 민간 단체가 직영 또는 위·수탁하든지 민간이나 개인이 무상 임대나 양여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등 방안이 거론됐다.

독립운동사에서 흥학관은 의미있는 발견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지휘본부를 오늘에 되살려 후대에 계승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광주정신을 보여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시 건축물은 사라졌고 토지가 분할돼 개인 소유 건물들이 남아있다. 지역사회가 함께 의지를 모아 기념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자체와 민간을 아우르는 범시민운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치칼럼



서순복

품자주사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몇 년 전 가용 나훈아가 부르는 '테스형'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고상을 떠는(?) 현자들의 철학 담론을 현실 생활 영역, 아니 시장등으로 갖고 내려왔다고나 할까? 기가 막힌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는 나훈아의 어록을 필자는 좋아한다.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광주 동구의 인문대학에서 그리스로마 신화의 권위자인 서울대 김현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기에 시간을 냈다. 강의들은 내용 중에 주민자치와 관련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을 필자 나름대로 번안 각색해본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했다. 입법 영역에서 강자인 의원은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의료의 강자인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내세우면서도, 일부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은 돈벌이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는 의료의 약자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외상전문 의이국중 의사가 한 말 "환자는 가진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 입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단적인 예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당시 제18대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에서 정

소크라테스(테스) 형이 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익이 안돼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도 1999년 동가능 전환 이후 25년이 지났고, 주민자치회도 2008년 첫 시범 실시 후 10년이 지났지만,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때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했고, 현정부 들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표준조례 개정(안)은 오히려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를 내렸다. 이는 주민자치 주민에게 주권 내지 자치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처사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 지도 벌써 십 년이 지났는데, 세상 어디에 시범 실시를 십 년 넘게 하는 제도가 어디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약자의 이익이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현대 정의론의 최고 권위자인 존 롤스가 '정의는 약자,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정의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입법과 통치에 있어 입법의 약자인 일반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트라시마코스의 말처럼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 트라시마코스 말처럼 세상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지지하고, 우리는 천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될 것이다. 우리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방의원 및 지방행정 담당자, 의사, 선장이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갈 것이다.

내가 강자인 분야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만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알뜰하게 챙기는데, 내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보지 않은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마음에 뜻뜻하다. 자기가익만 챙기는 사람은 나중에 들롱나면 망신당하고 몰락할 것이고, 안들기더라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는가. 마을에서 미꾸라지처럼 압살하게 굴고 뻔뻔한 사람이 더 잘 살고 평평거리리는 것 같다. 정의의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고생만 하고 오해와 핍박을 받는 수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2천400여년전 플라톤이 국가론 제10권에서 말했다. 국회의원이거나 의사가 돈벌이만 위해 일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지옥이 아닐까.

아름다운 공동체(Kallipolis)로 가는 길은 내가 강자인 분야에서 약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생각으로 남들도 나같은 마음으로 살아주길 바라고 나부터 솔선수범한다면 내가 약자인 분야에서 제대로 된 강자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먼저 내 분야에서 손해를 보면서 약자를 위해 노력해야만 그 덕을 본 사람이 "나도 그래이되겠구나" 결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늘어갈 수록 내가 사는 곳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 공동체도 그렇지 않을까? 김현 교수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다.

독자투고



집회는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로, 시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최근에는 평화적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자 화성기 또는 음향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을 보장

강화 된 소음 기준 준수, 공감받는 집회 문화의 첫걸음!

하기 위해 2024년 8월6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5db에서 60db로 5데시벨(db)이, 야간·심야 시간대는 10데시벨(db)이, 공공도서관 및 그밖의 지역은 시간대와 관계 없이 5데시벨(db)이 각각 하향됐다. 아울러 소음기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위 개정안으로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소음을 피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제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집회 참가자들 스스로의 배려와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순우·해남경찰서 경비반보>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웃음거리 박명숙

햇웃음과 쓴웃음 너머
웃음이 걸려 있네

웃안에는 몸이 없네
빈 몸으로 팔럭이네

웃음을 우리면서
웃음들이 뒤엉키네
(단시조집 '어긋나기', 목연예원, 2024)



[시의 눈]

오디오뮤직 큐를 넣습니다. 고전적낭만풍을 벗어나 독자적인 음악의 집을 짓고 그안의 침묵과웃은 그림자를 찾아내며 차오르는 그 생상소 교향곡을 듣습니다. 내 오랜 습관이지요. 난 둘째가 쓰다간 반밖에 듣니다. 녹음공간을 달래듯 발자국을 리듬에 이끌리는군요. 카미유 생상스는 시인의 말처럼 빈 몸의 웃음을 일탈하게도 합니다. 카페에수다떨웃음의 웃음을 난음악으로 치환해 봅니다. 농문을 열자 도열한 빈웃음이 춤을 춥니다. 거기 숨은 웃음들이 이따다 뒤엎겨 달려드는군요 무미건조한 내게 이웃저웃 보이며 빙긋 웃게도 만듭니다. 오늘 한 웃음 일으려 합니다. 이 허물웃 중 내게 눈짓을 계속 퍼붓는 한 소매자락이 있습니다. 웃집게로 장풍의 먼 뒷간을 훑어기며 뒤시하듯 뻗오지요. 아, 가을 억새처럼도 보이는군요. 오늘 강의 때는 이 얼은 하늘색 셔츠를 입을까 합니다. 햇웃음, 쓴웃음은 웃장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이빨히게 내미는 가을 신상품과같은 이 고급감각으로 수감자들의 '웃'을 '웃음'으로 출려야 하지 않겠어요? 시간방진 웃음이 입술을 타고 옵니다. 박명숙 시인은 경기 고양에서 출생,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 199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해 중앙시조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 '어머니와 어머니가'(2013), '은빛 소나기'(2011) 등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살리기 위해 말의 집을 여러 채 짓고 그그 마음을 이루게 하는, 아니 그 마음을 지배하는 성주(城主)와같은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